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10월 7일(금)

※ **엠바고: 생중계 시작 이후 실시간 보도 가능**

작성: 문화체육비서관실

배포: 대외협력비서관실

윤석열 대통령,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해 시·도 선수단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7일(금) 저녁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103회를 맞이하며, 10.7일(금)부터 13일(목)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점과 49개 종목 1만8천여 명의 시·도 선수단은 물론 18개국 재외동포선수 1,294명, 임원 등을 포함하여 총 2만7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생태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전국체전 내내 울산에서 이어질 함성과 열정 그리고 땀방울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가 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여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기념사에서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전문체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선수단과 체육계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국체전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울산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과 함께 개회식에 입장했습니다. <끝>